

# 심화엔피플

11월·12월 2012 vol.2



© 이목출 smile 11157-11205(2011)

S M I L E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 곳에 힘박웃음이 가득하고, 세상의 행복이 있는 곳에 밝은 미소가 피어나고,  
심화엔피플은 즐거움과 행복함이 담긴 그 미소를 세상에 전합니다

# CONTENTS

## THE STORY

- 01 테마스토리 행복을 마음에 담은 즐거운 건강 '웃음(Smile)'
- 04 피플 스토리 - 심화를 만드는 사람들 \_ 봉천 경대상사 오용기대표  
-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_ 자보팀

## THE COLOR

- 06 컬러 트렌드 음악을 들으면 색이 보인다
- 08 컬러 라이프 건강과 삶을 지켜주는 색과 자연 '옐로우 푸드를 만나다'

## THE FOCUS

- 09 마켓 인사이트 포스코도 인정한 프리미엄 페인트 '더 클래식'
- 10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 11 뉴스 포커스

## THE CULTURE

- 14 문화, 두 개의 시선을 마주하다  
(옹의자 X) vs (옹의자 X의 현산)

## THE COMMUNITY

- 16 심화가 전하는 기분 좋은 이야기
- 17 문화를 드립니다!



**cover story\_Smile**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 곳에 함박웃음이  
 가득하고, 세상의 행복이 있는 곳에  
 밝은 미소가 피어나고,  
 삼화인사들은 즐거움과 행복함이 담긴  
 그 미소를 세상에 전합니다.

© 이목을 smile 11157-11208(2011)

11 + 12



# Smile

행복을 마음에 담은 즐거운 건강 '웃음(Smile)'

아이와 성인은 하루 평균 얼마나 웃을까? 국내 리서치사 조사에 따르면 유아기 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 반면 성인은 고작 15번 정도 웃는다고 한다. 갓난 아이들은 제 기분만 알아줘도 웃고, 단순한 까꿍놀이에도 자지러지게 웃는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세상에 대해 무덤덤하다.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함께 늘어나는 책임과 삶의 무게 때문일까. 속 시원하게 하하 웃어본 일이 언제였는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 웃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잠깐의 미소조차 짓지 못할 상황은 없다. 이번 호 테마스토리에서는 웃을 일 많은 연말을 기대하며 스마일, 웃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웃음, 우리 모르게 항상 옆에 있어주는 것**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다. 화내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가도 상대방이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와 버리면 순간 맥이 풀려 버리고, 이내 마음이 누그러진다. 아기의 미소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때 하나 묻지않은 해맑은 미소를 보면 마음이 심란했던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절로 함께 미소 짓게 된다. 그야말로 미소는 우리를 순한 양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웃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우리를 순간적으로 순한 양으로 만드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웃음은 기쁘거나 만족스럽거나, 또는 우스울 때 얼굴을 활짝 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딱한 풀이로 웃음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부족한 감이 많다.

미국의 작가이자 스피치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는 '미소예찬'을 통해 웃음(미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소는 소모되는 것은 없으나 만들어 생산하는 것은 많다. 주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미소 짓는 그 순간 그 가치가 파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웃음에 대한 경험이라면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항상 이용하는 지하철 역 개찰구 옆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다. 주변에 그 흔한 편의점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서 구입하곤 했다. 이런 상황을 알아서 일까 주인 아저씨는 손님들에게 불친절했다. 먼저 웃음을 보여도 아저씨의 입 꼬리는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그 아저씨가 병어린 줄 알 정도였으니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 것이다. 그래도 그곳을 들들 때면 먼저 미소 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저씨도 웃기 시작했다.

결국 웃음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먼저 줘야 하는 것이다. 먼저 웃으면 속없어 보이고, 간혹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딱히 크게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서로의 미소가 오가면서 가정에는 행복을 더하고 사업에는 윤희유 역활을 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의 씨앗을 심어주는데 그 어떠한 계산이 필요하겠는가.

이처럼 웃음은 녹록하지 않은 세상살이에 한 줄기의 빛 같은 존재이며, 함께 할수록 그 빛은 배가 되어 웃음을 활용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스마일 캐릭터 '스마일리'도 스마일 캠페인의 일환으로 탄생되었다.

1963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한 보험사는 직원들을 위해 즐거운 환경을 조성하고 싶어 당시의 상업 예술가 하비 볼(Harvey Ball)에게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줄 디자인을 의뢰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단 10분 만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스마일리를 그려냈다.

회사는 스마일리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스티커, 버튼, 포스터를 만들었고, 이는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 스마일리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디자인이 됐고, 단추, 티셔츠 등 다양한 상품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마일리를 스마일 캠페인 캐릭터로 사용할 것은 웃음에 담긴 해독작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 하지만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풀어야 하는데 웃음으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웃음이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 하루 45분만 웃어도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빨라져 심장병과 동맥경화,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놀람, 불안, 초조, 짜증이 섞인 감정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심장을 상하게 하지만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몸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 심장병을 예방해 준다. 그래서 웃으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면역체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웃음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위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최고의 보약이다.



개그콘서트 © KBS

**일요일 밤, 우리가 개콘을 보는 이유**

웃음이 보약이고, 우리 일상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웃으라고 한다. 그러나 대체 뭘 보고 웃어야 하는 걸까. 우리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소소하게 웃을 거리는 많지만 한 번 더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순간 웃음을 뺏 터뜨리게 하는, 원초적인 웃음을 짓게 하는 것은 단연 개그 프로그램이다. 아주 대놓고 우리를 웃겨보겠다고 민만의 준비를 다 하고 나온다. 개그 프로그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개콘이 아닐까.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도 개콘이 하면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를 웃겨줄까 하고 채널을 고정시키게 된다.

개콘을 보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웃기니까 본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하루 평균 성인이 웃는 회수인 15번은 거뜰히 넘긴다.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개그 코드로 활용해 깨알 같은 웃음을 준다. 계속 웃다 보면 속까지 후련해지는 기분이다.

하지만 단순히 웃겨서 개콘을 보는 것은 아니다. 한 주부는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쿠션 끌어 안고 개그맨들의 웃음을 온 몸으로 받아내고, 깔깔거리며 시원하게 웃으면 머릿속이 깨끗해져 한 시간 동안 심리 치료를 받은 기분이란단다.


뿐만 아니라 개콘 하나로 말문을 터뜨릴 수가 있다. 어색한 사람들과 있을 때 날씨 얘기만큼 쉽게 꺼낼 수 있는 게 "어제 개콘 봤어요?"다. 봤다면 본 얘기를 나누며 함께 웃으면 되고, 안 봤다면 웃겼던 장면을 얘기 해주면서 웃음을 나누면 된다. 그러는 동안 한기가 들던 관계는 그 순간만큼은 뜨거워진다. 혹자는 개콘을 보면 다음날이 월요일임을 깨닫게 해 씁쓸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웃으면서 마무리 하고, 기분 좋은 월요일을 시작하려고 일요일에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개콘을 보고, 다음 주에도 개콘을 보기 위해 리모콘을 차지할 것이다.

**웃음을 그리는 화가 이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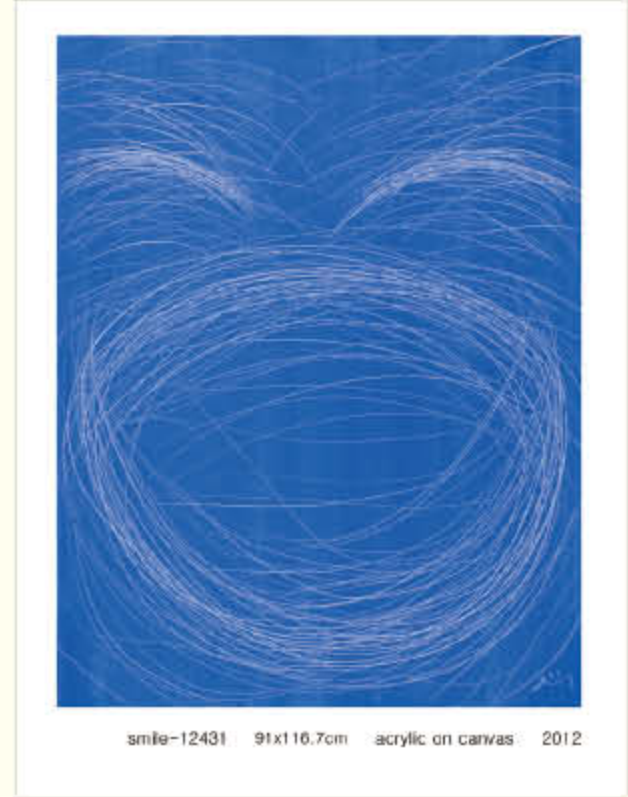
눈 두 개, 입 하나로 완성된 그림이 있다. 그야말로 초 단순한 그림이지만 그 작품은 마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흐릿하게 함께 웃음을 짓게 된다. 화폭 가득히 웃음을 그리는 화가 이목울의 작품 '스마일'이다. 미소들 주제로 많은 화가들이 작품을 선보였지만 것처럼 단순 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해준 사람은 드문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웃는 얼굴의 핵심은 휘어진 눈, 한껏 올라간 입인데,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

겉으로만 드러난 그의 작품을 보면 얼마나 실이 즐겁길래 웃음 가득한 그림만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밝을 뒤편 어둠도 있는 법이라고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 험겨운 일도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눈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인데 한 쪽 눈을 실명했고, 나머지 한 쪽 눈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는 힘들고, 그것을 결국 받아들이면서 밝은 웃음을 그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아프다고 말하면 상대도 아파지는 거지요. 그래서 웃지요. 사람들 모두 마친가지예요. 웃음 뒤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여러 일들이 있죠. 뭐 그냥 웃자 하는 거예요. 아파도 웃자. 그러다 보면 진짜 웃음이 될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럴까. 그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 진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 이목울 smile-12431



smile-12431 91x116.7cm acrylic on canvas 2012



좌측부터 오종근 대리, 오용기 대표, 배법진 총무

## #01. 삼화를 만드는 사람들

봉천 경대상사 오용기 대표 | 취재\_ 이승호

“페인트는 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겨울을 제촉하는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수요일, 삼화를 만드는 사람들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코너의 첫 테이블 끝을 서울 봉천동에 있는 경대상사로 향했습니다. 3대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이곳은 오래된 것 같지 않게 아주 정갈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봉천 경대상사의 오용기 대표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비브실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경대상사 소개와 함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대상사는 아주 오래 된 대리점입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1960년 대에 돈암동에서 ‘일신도로’로 시작해서 지금은 봉천동에서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리점의 특별한 점은 3대가 대를 이어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그리고 든든한 저의 아들,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Q.** 3대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렇다면 가업으로 이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어가는 이유요? 사실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인트 통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도 젊은 내가 하는 게 낫지” 하며 시간 날 때마다 도왔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 관심도 갖고, 일도 재미 있어서 하나씩 들쭉 배워가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Q.**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만큼 영업적 노하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우리의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신뢰를 통해 돈독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람들이 저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있고요.

**Q.** 그럼 삼화페인트 제품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품의 질에 변함없이 한결 같다는 것이 최고 장점이라 생각해요. 품질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면 파는 우리도 힘들고, 샀던 사람들도 결국 등을 돌리고 말죠. 삼화페인트를 써 본 사람들 말이, 삼화페인트의 좋은 품질은 변함 없어서 계속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손이 익어 다른 것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굉장한 장점 아닌가요?(웃음)



**Q.** 페인트와 함께 한 세월이 긴데, 사장님 인생에서 페인트란 무엇인가요? 제 인생에서 페인트란 저를 존재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페인트 덕분에 잘 먹고, 자식을 학교 다 보내고, 친구들에게 배울 수도 있고,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가곤 있었겠죠. 그래도 결국 택한 것이 페인트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이게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02.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자보팀(자동차보수용 도로 영업팀) | 글\_사업관리팀 신용기

“자보도로=삼화페인트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동차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는 자동차보수용 도로! 이 도로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화페인트의 자보팀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자보팀을 소개합니다.

**Q.**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코너의 첫 번째 소개 부서가 됐습니다. 먼저 간단히 팀 소개해주세요. **문재영 팀장** | 저희 팀은 이름 그대로 자동차보수용 도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치열한 자보도로 시장에서 카로클(KAROCLE)이라는 신무기를 앞세워 ‘자보도로=삼화페인트’라는 신념으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Q.** 각자 자기소개를 해볼까 했는데 다들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옆자리에 계신 분을 대신 소개하는 것으로 할게요.

**문재영 팀장** | 부드러운 미소 속에 냉철한 판단력을 소유한 라현호 과장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신차 내-외장재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현호 과장** | 미소 속에 냉철한 판단력. 제가 그런 사람이군요(웃음). 저는 구태우 대리를 소개할게요. 동글동글한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고객 밀착영업의 달인이예요. 수도권 내 삼화페인트 자보도로 확대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구태우 대리** | 구수한 사투리가 인상적이나 영업력만큼은 탁(?)별사인 최정민 사원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삼화페인트 자보도로의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는 데에 일조 중입니다.

**최정민 사원** | 영업력만은 특별시라는 건 쟁쟁하죠(웃음). 제 옆에 있는 이원석 사원은 활발한 외모답게 시원시원한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만족 보증수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의 자보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원석 사원** | ‘강원지역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 이게 바로 김완주 사원입니다. 참 순진해 보이는 외모 속에 숨겨진 자보시장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삼화페인트 자보도로가 강원지역에 뿌리를 내리는데 거름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죠.

**김완주 사원** | 순진한 외모라 제가 팀원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도 다 있네요. 제가 소개할 이민영 사원은 우리 자보팀의 꽃입니다. 친화력 있는 목소리로 고객 상담업무와 팀원들의 영업활동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민영 사원** | 자보팀의 ‘꽃’인 제가 문재영 팀장님을 소개할게요. 팀장님은 자보팀의 수장으로 십 수년간 쌓인 자보도로 시장의 영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발 빠른 대처능력과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팀원들을 진두 지휘 하시는 분이세요.

**Q.** 각자 캐릭터가 확실한 팀답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영 팀장** | 부서 소개 인터뷰로 저희 팀이 첫 번째로 하게 됐는데 정말 영광이네요.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팀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화페인트 자동차보수용 도로가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 하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팀원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



문재영 팀장



라현호 과장



구태우 대리



최정민 사원



이원석 사원



김완주 사원



이민영 사원

# 음악을 들으면 색이 보인다.

간혹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색이 연상될 때가 있다.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눈을 자국이 감고 소리를 들어보자.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연상되는 색을 떠올려보자. 우리가 높은 고음을 들을 때 밝은 노랑을 떠올리거나 낮은 저음을 들을 때 어둡고 탁한 색이 떠오르지 않는가? 이번 컬러트렌드에서는 음악 속 숨어있는 색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자.



음악과 색만큼 세상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음악과 색은 사람의 삶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악과 색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음악과 색의 상관관계는 아주 과거부터 연구되어 온 심미적 연상작용 중 하나다.

**소리와 리듬의 조화로 청각을 대표하는 음악과 시각의 대표를 색으로 보았을 때 둘은 어떤 연결 관계가 있을까?**

색과 음악의 공통된 물리적 특성은 파동이다. 파동은 색과 음악을 연

결하는 근본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색은 빛의 진동이 인간의 시각계를 통해 뇌로 전달되어 색을 보여주는 것처럼 음악 또한 공기의 떨림으로 소리(음악)를 구분할 수 있다. 즉 색의 삼색성과 음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서로 대응시켜보면 색상-음계 명도-옥타브, 채도-음색과 같은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색상과 음계의 관계에서 빨강은 '도', 주황은 '레', 노랑은 '미', 초록은 '파', 파랑은 '솔', 남색은 '라', 보라는 '시'로 구분하고, 색에서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누는 명도는 색의 가볍고 무거운 무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음악에서의 옥타브로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도는 음악의 음색과 대응하여 맑고 탁함을 소리의 배음으로 설명할 때 서로는 꼭 닮은 하나에 이란성 쌍둥이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소리와 색의 연관 관계는 크게 청각과 시각의 공감각적 성격을 갖는다. 공감각이란 서로 다른 감각이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둘 이상의 감각이 하나의 단위 이미지 안에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듣는 소리를 색으로 연상하는 작업은 음악적 요소를 시각적 요소로 표현하는 작업과 시각적 요소를 음악적 요소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월트 디즈니의 작품 [환타지아]는 음악영화로서 색채와 음악을 융합시킨 최고의 걸작으로 불린다. 이 작품 속에서도 [베토벤 교향곡], [전원 교향곡] 등 작품 68개 전곡 모두가 다채로운 색채로 번역되어 표현되어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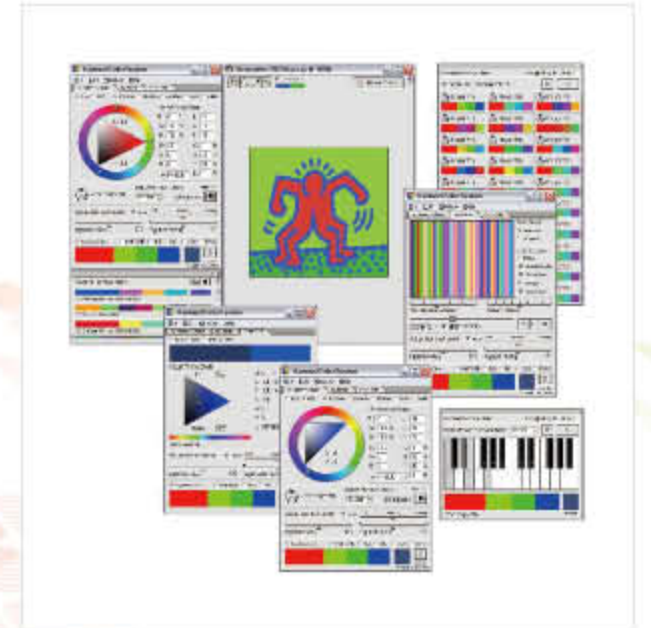
무소르크스키의 색채적인 화성의 완성이라 불리는, 러시아 색채음악의 거장 작곡가 알렉산더 스크랴빈(Alexander Scriabin)은 음악 속에 색채를 불어 넣어 그의 최후 작품인 프롬테우스에서 색광피아노(무지개의 7색이 원반에 의해 스크린에 투영됨)를 사용하여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색이 가미된 조명으로 가득 채워진 음악회장을 연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악과 색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연구소에서 음과 색의 상호 변환 기술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색채화한 영상을 피실험자에게 실험한 결과, 오디오만 들었을 때 보다 현저히 많은 일파파와 베타파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음을 색으로 시각화시켰을 때 심리치료에도 효과적이며, 그 외에 디자인분야, 예를,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인간의 감성과 시청각을 자극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과 색의 상호 변환 기술을 개발한 김길호 대표는 팬택 핸드폰에 탑재한 Sound2Vision Engine, 방송국이나 공연, 가전회사들에 공급할 실

시간 유적 비주얼 편집장비 Sound2Vision 셋톱 박스, 화성적 자동배색프로그램인 HCS, 음악에 반응하는 LED조명, 음정과 박자를 실시간 채점하는 음악게임엔진인 '플래' 등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다.



■ 부산 롯데캐슬 주택문화 전시관 <소리정원>  
소리에 반응하는 LED 조명 기술을 이용하여 관객의 목소리에 따라 색이 변하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 Sound2Vision 음색변환이론을 바탕으로 한 세계최초의 자동배색프로그램 PANTONE, DIC, TOYO, NCS 등의 다양한 디지털 색체계와 상호변환지원

이처럼 색과 음악은 색채음악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성장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실례으로 색채음악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아마 여러분도 색채음악의 치명적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 건강과 삶을 지켜주는 색과 자연 '옐로우 푸드(Yellow Food)'를 만나다'

우리 식단에 컬러 붐을 일으킨 컬러 푸드. 우리가 먹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의 색은 '피토케미칼(Phytochemicals)'이라는 성분에 의해 결정되고, 이 성분에 따라 영양소도 각기 다르게 난다. 이처럼 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묶어 '컬러 푸드'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컬러 푸드는 그린, 레드, 옐로우, 블랙, 화이트의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 퍼플을 추가해 총 여섯 가지가 컬러 푸드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중에서 최고의 컬러 푸드를 고르자면 옐로우를 뽑고 싶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은 물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노화와 암세포 생성을 억제한다. 또한 알파 카로틴이 야간 시력과 건강한 피부에 필수적인 비타민A로 전환돼 야맹증, 안구건조증, 백내장 등을 예방하고, 세포분화 등에 도움을 준다.

온 가족을 위한 웰빙 식품, 바나나 옐로우 푸드의 대표적인 식품은 몸짱을 위한 웰빙 식품 바나나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한데, 1개의 열량이 80칼로리 정도라서 식대용으로도 좋다. 지방이 거의 없고 탄수화물이 많아 밥 대신 먹으면 포만감을 느낀다. 또

한 스트레스와 불쾌한 감정을 완화시키는 항진정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다이어트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뭉스킨 호박? 아름다워 지고 싶은 여성을 위한 호박! 예뻐지고 싶다면 호박에 주목하자. 다들 뭉스킨 호박이라 부르지만 호박은 예뻐지는 영양소들 가장 많이 가진 식품이다. 호박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준다.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화, 암세포, 동맥경화,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칼륨, 섬유질도 풍부해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피부미인이 되고 싶은 여성들이 특히 더 가까이 두어야 할 식품이다.

간단한 조리법 알찬 영양소, 카레 노란색에 먹음직스러운 카레. 그 카레가 노란 이유는 주재료인 강황 때문인데 이것은 몸 안의 기름 소탕시키는 역할과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나쁜 피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월경통, 생리불순, 무월경증상 등의 여성질환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젖은 슬자리를 갖는 사람들도 카레를 먹으면 좋다. 기운 튼튼하게 해주고 독소를 제거해줘 면역력 강화는 물론 대장암과 위암, 폐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우리 몸의 지방 축적을 억제해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빠질 수 없는 식품이다. 점점 기온이 떨어지는 요즘,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 평소엔 옐로우 푸드를 챙겨먹는 것은 어떨까. 우리 몸을 조절하는 비타민과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 덕분에 감기 없이 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㉔



### 눈으로 느끼고 입으로 먹고 옐로우 푸드 맛집

정통 인도 카레 전문점 강남역 '타지' 서울 한복판에서 인도의 정통 카레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강남역에 위치한 '타지'는 인도풍 인테리어와 인도음악이 인상적이다. 인도인이 사칭을 하고, 그들이 손님 각자 입맛에 맞는 카레를 추천해준다. 같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운 갈릭난과 매콤한 라라 고쉬트는 가히 일품이다.

호박 요리 전문점 신촌 '호박이랑꿀떡' 호박요리에는 호박전, 호박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호박이랑꿀떡'은 호박요리 전문점으로 다양한 호박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박요리는 호박치즈 떡볶이다. 호박에 떡볶이와 치즈, 그리고 바삭 양파 등 채소를 넣어 만든다. 담백하고 달콤한 호박과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치즈가 어우러져 겨울철 차가워진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다.

## 포스코도 인정한 프리미엄 페인트 '더 클래시'



지난 11월7일 인천 송도(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비롯한 그들사 회장단 및 협력업체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동반성장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동반성장은 말 그대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성과를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의미로서 국내 대기업 중 포스코가 가장 적극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

본 행사는 협력업체별 성과공유 아이템이 수 백 개에 이르는 가운데, 3차에 걸쳐 최종 5개 협력업체가 선정되었다. 이중 포스코건설과 삼화페인트가 공동 특허 출원 중인 '저오염 공방이 결로방지 페인트'인 더 클래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더 클래시는 공방이 방지를 위한 반영구적 항공방이 성능과 공방이 발생해도 쉽게 지울 수 있는 이지클리닝 성능을 개발하여 제품 우선주의에 일몰적인 방식이 아닌 소비자의 욕구를 세심히 연구하고 그곳에서 얻어진 성과 도출이기에 더욱 값진 보상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참조)

더 클래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급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탄생된 제품으로 글로벌 화학기업인 (유)듀폰사의 테플론과 삼화페인트 기술력의 합작품으로 단순히 테플론 상표의 Co-Branding 만이 아닌 1년 여의 시간 동안 듀폰사 미국 홍콩 실험실에서 더 클래시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인증을 획득하여 얻어진 결과물이다. (그림 2참조)

듀폰사의 테스트는 1(최저)~10(최고)등급 비오염성 이지클리닝 시험으로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하여 일본 NIPPON Paint나 유럽 몇몇 제품만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는 더 클래시가 8등급으로 유일하다. 이처럼 항공방이성을 인정받은 더 클래시는 식품 대기업인 ㈜하림 전북공장, 수원 아주대학교 부속병원, 송도 포스코 더샵 그린스퀘어에 시공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성과공유 최우수에 걸맞게 포스코건설에서 건축 예정인 전국 더샵 브랜드에 시공되어, 삼화페인트의 기술이 더욱 청결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으로 소비자에게 보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참조) ㉕



※ 듀폰사 (www.dupont.com)  
1802년에 설립, 합성고무와 나일론 등을 발명하였으며, 세계적인 브랜드 테플론과 합성섬유, 합성수지, 농약, 도로 등 2세기에 걸치는 글로벌 과학동합 업체임.



##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삼화페인트는 언제나 소비자를 존중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사례를 분석하고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 플레임체크(2시간용:SS-2400) 크랙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상도 도장 완료 상태에서 전 반적으로 크랙이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크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원인은 1회 과도막 도장에 의한 크랙 발생으로 두꺼운 부분과 증착되어 과도막으로 도장된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하였으며, 건조가 진행될수록 크랙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 보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도장 시 습도라기준 1.5mm 이상의 과도막으로 도장할 경우 건조 후 크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습도라기준 1.5mm 이하로 도장을 해야 합니다. (SS-2400 : 2012.10.22 안정기간 만료로 현재는 SS-2800, SS-2900 출시)

\*SS-2400 후천도막두께 규 모용3.0mm , 기공용 3.40mm(최대 비포화 시)



**Q** 에포크트7100의 도장 후 백화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원인은 옥외 폭포 시 에폭시 수지의 내후성 특성에 의해 우천시 에폭시 도막이 수분과 장기 접촉하면서 백화가 발생하였습니다.

**A** 보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급적 에폭시 도막의 백화 부분을 샌딩 처리 후 신나 세척하여 제거합니다. 제거 후 우레코트300으로 도장을 해야 하며, 옥외 노출되는 부분은 상도용으로 우레탄 제품의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Q** 40바루스파 무광 도장 후 백화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발생원인은 흡수력이 있는 목재에 무광도료로 도장시, 유광도료로 선 도장 후 무광도료를 도장하여야 하나, 무광도료를 단독 도장하여 제품내의 소광제가 표면에 떠 백화 현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A** 보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현상 발생된 부위 전체 페퍼 그라인더 작업 후 목재에 유광도료로 충분히 도장하여 흡수율 차단한 다음 무광도료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 도장시스템 => 40바루스파 A급 (유광) / 40바루스파 무광  
무광투명 도장시 구도막이 없는 신규 도장일 경우에는 유광투명으로 수회 도장후 마지막에 무광투명으로 도장해야 합니다.



## News

### 삼화페인트, 해외법인 분체공장 준공식 개최



## Focus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10월 17일 중국 위해삼화도료유한공사(이하 위해삼화)의 분체공장 준공식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위해삼화는 2000년 5월 설립되어 목공용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 신나류 및 에폭시류, 우레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삼화페인트의 첫 해외 진출 회사이다. 현재 위해 지역뿐만 아니라 청도/천진/연대 지역의 분공사 설립을 통하여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용 도료의 매출증대로 2012년 2분기부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분체도료는 친환경 제품으로 중국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적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친환경 도료'가 이슈로 부각되며 중국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위해삼화 역시 이러한 환경에 발 맞추어 분체공장을 준공하여 연간 1,000톤 이상의 분체도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위해삼화 분체공장 준공을 통해 친환경적 사업전환의 강화와 분체도료 사업군의 포지션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며, 분체도료와 액상도료의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매출 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한편, 삼화페인트는 지속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삼화도료(장가항)유한공사를 추가로 설립했으며, 지난 2010년엔 베트남에 핸드폰용 도료 중심의 플라스틱도료 제조·생산 법인인 삼화페인트 비나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에는 중방식 신규시장 바닥방수 및 건축용 시장 개척과 더불어 Asean 및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합작법인인 삼화페인트(M)을 설립하였다. 취재기자 안수용[재무팀 대리]

### 삼화페인트, 서울시 감사패 수상



삼화페인트공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디자인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지난 10월 17일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재 한서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서울시 디자인프로젝트 프레스데이(Press Day)'에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지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토대로 서울시는 발생하는 범죄의 대부분이 취약한 환경적 요인과 연관이 있어 환경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죄 발생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디자인프로젝트(범죄예방백신)'를 실시했다. 먼저 가양동 소재 공진중학교와 염리동 사가지 일대를 선정하여 디자인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많은 공간들은 다양한 색상의 도로들로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색상들은 인간의 흐름, 먼지와 강우 등으로 오염되어 색이 바래진다. 특히 아이들의 왕래가 잦은 학교 및 학교주변, 통학로 등은 낙서와 손때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심한 상태이다. 이에 삼화페인트는 글로벌 종합화학 기업인 듀폰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2012년 출시된 프리미엄 브랜드인 '더 클래스(The Class)'와 앞치마 등을 서울시에 협찬했다. 공진중학교의 실내외와 염리동 사가지 일대의 거리에 사용된 '더 클래스'는 듀폰의 테프론® 첨가제를 적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듀폰의 불소첨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이지크리닝(Easy Cleaning) 효과로 먼지 및 낙서로 인한 오염제거 기능이 탁월(내부용)하다. 외부에 적용 시 공기 중 먼지와 강우로 인한 외벽의 빗물자국에 의한 오염발생이 현격히 감소하는 특징(외부용)이 있다. 또한 무게 항균제를 적용하여 반영구적인 항균, 항곰팡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더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여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취재기자 안수용[재무팀 대리]

## News

### '방사선경화성 수지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내지문성 수지조성물' 국내특허 취득

## Focus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10월 31일 '방사선경화성 수지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내지문성 수지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

현재 산업에서 스테인리스는 매우 중요한 소재로 특유의 내식성 및 미려한 금속 광택을 나타내는 장점으로 주방싱크대, 조리기구 및 식기류뿐만 아니라 건자재 소재로써 건물 외장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석유화학 사설 및 자동차와 비행기 부품 소재 등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소재는 광택감이 우수한 반면 오염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면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삼화페인트와 포스코 연구소가 공동으로 대년간의 연구 진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다. 스테인리스 소재면에 박막 코팅이 가능하고 스테인리스 고유의 금속 광택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문 등에 의한 오염 방지가 가능하도록 스테인리스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한 수지 조성물 내 유기 용제가 함유되지 않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이 없고, 방사선 경화방식에 따른 순간 경화 건조가 가능해 기존 열경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의 사용량 저감화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테인리스 기재와의 밀착성과 내스크래칭성, 내광성 및 내열성, 굴곡 가공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본 기술은 세계적 철강 업체인 포스코 연구소와 대년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 스테인리스 소재 제품의 적용 분야를 넓힘에 따라 당사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취재기자 안수용[재무팀 대리]

### The Classy, 포스코 패밀리 동반성장 페스티벌 최우수 선정



포스코는 지난 11월 7일 포스코 센터에서 '2012 포스코 패밀리 동반성장 페스티벌'을 실시했으며, 우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삼화페인트는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트리즈 활용을 통한 발코니 결로 및 곰팡이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본 과정은 성과공유 부문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항곰팡이 도료는 유기계, 은계, 산화티탄 광촉매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다. 유기계는 다양한 형태로의 적용이 쉬운 반면 열에 약하며, 물에 용출되어 지속력이 떨어지고, 투과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은계는 내열성, 안정성이 있는 반면 항곰팡이성이 떨어지고 발암성 물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투과성이 없다. 산화티탄 광촉매는 발암성 물질을 제거하고, 방오 및 탈취기능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 빛이 필요하여 적용이 제한적이며, 투과성이 없다.

상기의 제한적인 성능발휘와 달리 무기계 항곰팡이제 사용한 수성도료는 고내구성 및 고내열성을 가지며, 물에 용출되지 않고, 기존의 항곰팡이 도료와는 달리 투과성이 있어 도로 단독은 물론 그 도막 위에 일반도료를 도장하여도 항곰팡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삼화페인트는 포스코건설과 실시한 프로젝트로 공동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번 수상으로 포스코건설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세대 내 마감 표준지침 및 도장공사 사양서에 더 클래식(The Classy)가 반영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취재기자 김필영[연구지원팀 주임연구원]

## News

### 인터넷 주문시스템 (www.paintnet.co.kr)의 리뉴얼 진행

## Focus

삼화페인트는 변화하는 윈도우 및 인터넷 환경에의 대응 및 기타 프로그램과의 충돌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고자 인터넷 주문시스템 리뉴얼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자동 검색기 관련 게시판을 별도 신설하여, 대리점주들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존 시스템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수정하여 오는 12월 오픈 예정이다.

취재기자 신용기[사업관리팀 대리]

### 한국색채대상 수상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11월 10일 (사)한국색채학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색채대상'에서 전적으로 추진했던 SAMHWA-NCS Collection 950 Color의 전시기획 부스디자인으로 대상(지식경제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한국색채대상'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며,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에서 후원하는 시상이다. 우리나라 색채문화의 발전과 색채산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수한 색채디자인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으며, 학계뿐만 아니라 색채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제10회 한국색채대상에서 삼화페인트는 페인트 업계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컬러선도 기업으로서 상당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수상으로 새롭게 런칭한 SAMHWA-NCS Collection 950 color를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컬러의 선도 기업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SAMHWA-NCS Collection 950 color의 인지도와 사용 확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취재기자 이미리[컬러개발팀 연구원]

### 2012년 한국사용품질지 수 1위 기업 선정



삼화페인트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한 2012년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조사에서 유성도료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해당 기업의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 및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종합지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단순한 기능을 뛰어넘어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타사의 제품·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경쟁우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기업들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화페인트는 뛰어난 품질 및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에서 호평을 받아 유성도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 1위 기업은 삼화페인트를 포함하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23사의 28개 품목에 대한 인증이 수여됐으며, 한국표준협회에서는 9월 13일 매일경제신문의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포커스신문에 연합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9월 18일 매일경제신문에 연합광고를 게재했으며, 10월에는 월간 포브스, 월간 CEO& 품질경영지, 산업저널 등의 월간지와 지하철 향광배너가 게재됐다.

취재기자 원유락[마켓지원팀 과장]





그의 사랑이 단서가 된다

천재수학자의 완벽한 알리바이

# 용의자X

2012. 10. 18

문화, 두 개의 시선을 마주하다.

## <용의자X> VS <용의자X의 헌신>

웹서핑을 하다 보면 연예인들의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오는 사진과 글을 보게 된다. 같은 옷인데 누가 입고, 어떻게 연출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했지만 감독만의 시각, 출연한 배우 등에 따라 영화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삼화엔피플> 이번 호에서는 '같은 소설 다른 영화'라는 주제로 일본 소설 <용의자X의 헌신>을 원작으로 한 영화 <용의자X>(한국)와 <용의자X의 헌신>(일본)을 비교해 본다.

한국판과 일본판 둘 다 남몰래 좋아하고 있는 여자가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세운다는 원작의 줄거리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비록 같은 옷을 입었지만 서로 다른 느낌으로 관객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만드는 것라 그 문제를 푸는 것 중 어느 게 더 어려울까?”

두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 영화 포스터의 카피를 통해 암시되고 있다. 한국판 카피는 '그의 사랑이 단서가 된다'이고 일본판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천재 수학자 vs 사건을 파헤치는 천재 물리학자, 두 남자의 뜨거운 대결이 시작된다'이다. 일본판이 원작 소설 재현에 충실하고 사건 해결을 치밀하게 보여주면서 추리물의 정석을 보여줬다면 한국판은 왜 석고가 화선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러는 동안 그의 애꿎은 심리에 비중을 두며 그려냈다. 한국판은 철저하게 석고를 중심으로 이야기들 풀어나가기 때문에 일본판에서 나오는 천재 물리학자 유카와 대신 그의 동창생이자 형사인 민범이 등장하게 된다. 일본판의 유카와가 이시카미와 머리싸움을 한다면 동창생 형사 민범은 석고의 행동을 보면서 감을 잡고, 그 감을 따라서 우직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머리와 머리의 대결이 아니라 머리와 직감의 대결 구도다.

“그건 내 머리가 아니고 내 가슴이다”

이런 설정으로 석고가 사모하는 여자 화선에 대한 비중도 일본판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모든 것이 석고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석고의 감정과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관객들은 감춰져 있는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것이 아닌 석고의 행동과 감정을 따라가며 공감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추리물에서 해결 후에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엔 무리다. 결국 석고의 감정에 얼마나 이입했느냐에 따라 한국판의 만족도가 달라진다.

또한 석고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니 감정 과잉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감정을 관객에게 강요하는 면이 있다. 이에 반해 일본판은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 나쁘게 말하면 특징 없이 맛있다. 두 주인공의 머리싸움과 사건 해결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 자체로 흥미를 주지만 캐릭터에 대한 감정이입은 떨어진다.

감성의 한국판과 이성의 일본판. 이 두 영화 중 어느 것이 더 낫고 아시고를 따질 수는 없다. 단지 내 입맛에 더 맞는 것이 있을 뿐이다. 둘 중 한 영화만 보았다면, 혹은 둘 다 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서로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당신의 어느 무릎한 주말 오후를 꼭 채워줄 것이다. S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천재 수학자 vs 사건을 파헤치는 천재 물리학자 두 남자의 뜨거운 대결이 시작됐다

# 용의자X의 헌신

2009년 4월 대개봉!

### 쫓는 남자와 쫓기는 남자! 이들의 짜릿한 한 판 승부가 돋보이는 영화



#### <내가 살인범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뻔뻔한 사람이 또 있을까. 영화(내가 살인범이다)의 주인공 이두석이 그렇다. 공소시효가 지난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차신이라며 자서전을 내고 당당히 얼굴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사건 담당 최형구는 범

인을 잡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미해결 실종사건을 파헤쳐 세상이 용서한 이두석을 어떻게든 잡아넣으려 뛰고 또 뛴다. 반전과 유머, 속도감 있는 전개와 과감한 액션 등 스릴러가 갖춰야 할 조건을 모두 완벽하고 있어 러닝타임 119분 동안 지루할 틈이 없다. 무엇보다 정재영과 박시후의 열연을 빼놓을 수 없다. 충무로 명품 배우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정재영과 선과 악을 넘나드는 얼굴, 몸 사리지 않는 연기가 이 영화의 모든 요소를 빛나게 해준다.



#### <더블(The Double)>

냉전시대의 여러 전설적인 이중 스파이들의 이야기인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다. 영화(더블)도 그 중 하나다. 1991년 소련의 몰락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갈등이 거듭되던 냉전시대는 사실상 종결됐다. 냉전시대의 끝과 함께

대립해 있던 양 진영의 수많은 스파이들은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종적을 감추게 된다. 과연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행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영화는 전설적인 스파이이자 암살자인 임호명 '키시우스'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던 상원의원을 암살하는 사건으로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존재를 쫓는 두 남자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다. 미중년의 아이론 리처드 기어의 액션이 다소 힘겨워 보이지만 이런 노장 배우의 역동적인 모습과 두 남자의 두뇌 싸움은 관객을 스크린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 삼화가 전하는 기분 좋은 이야기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문득 따뜻한 마음 하나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삼화가 전하는 기분 좋은 이야기'는 누구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를 담아 삼화애플 독자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기분 좋은 여유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랜터 윌슨 스미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네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네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네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 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관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심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네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 순간에 불라임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화애플 독자 여러분에게 보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관심 어린 의견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기사와 개선됐으면 하는 점을 이메일 (speople@spi.co.kr)로 보내주십시오. 독자의 의견을 귀담아 더 나은 삼화애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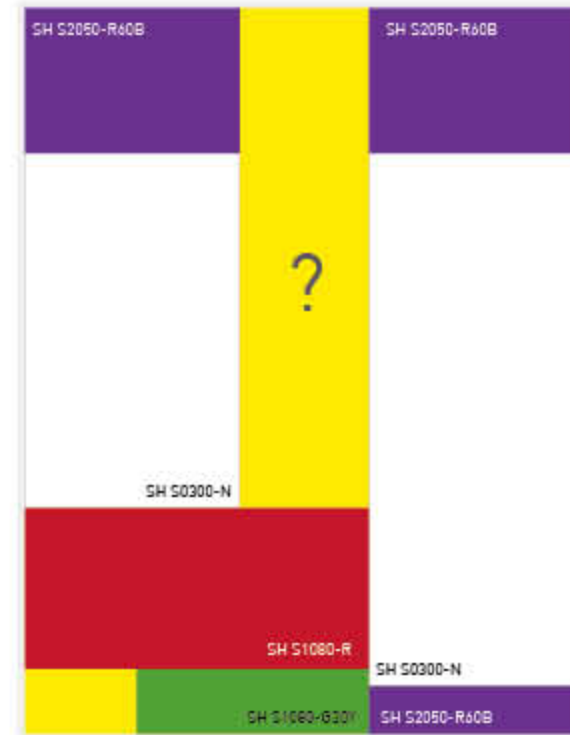
## <삼화애플>에서 독자 여러분께 문화를 선물해 드립니다

삼화애플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참여 페이지 '문화를 드립니다'입니다. 아래 'COLOR & QUIZ'에 참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E-mail : speople@spi.co.kr

### 컬러코드를 찾아라!!

Q. 다음의 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색으로 따뜻하고 풍부한 느낌의 색입니다. 색채심리에서는 이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밝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큰 이상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색을 나타내는 SAMHWA-NCS Color 코드는 어떤 것일까요?

- ① SH S1080-R    ② SH S1080-G30Y    ③ SH S0560-Y10R    ④ SH S2050-R60B



\*NCS Natural Color System의 표기법

Naunce  
**SH S 0506 - Y10R**

SAMHWA의  
ONL  
NCS 컬러의  
Second edition  
표 Standard의  
이름 의미함

정량량 순색량  
0506 + 순색 + 황양 = 100

색상

흰색량(W), 검정량(B), 색상(C) 순으로 표기합니다. NCS에서는 주어진 색에 대해 흰색량(Whiteness), 검정량(Blackness), 순색량(Chromaticness)의 합은 항상 100으로 가정한다. (즉, W+B+C=100) 예를 들어 NCS의 'S 1050-Y90R'에서 '1050'은 검정색과 순색의 근접 정도를 나타내며, 여기에서는 검정색 10%, 순색 50%를 갖는 색이 됩니다. 색상을 나타내는 'Y90R'의 경우 두 개의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빨강이 90% 포함된 노랑을 의미합니다. 색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무채색의 경우 neutral의 N을 붙여 나타냅니다. '0500-N'은 흰색이며, '1000-N', '2000-N' 등의 형식으로 '0000-N'의 경계까지 표기합니다. NCS표기에서 's' (ex. S 1050-Y90R)의 의미는 NCS 색표집 제2판(second edition)임을 나타냅니다.



##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드립니다! <삼화애플> 황간호 퀴즈 코너 '문화를 드립니다'에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장이신 박정식 상무님과 레인보우기자단의 공정한 추첨을 통해 총 5분의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이번 호 당첨자 서울 구로구 성유진님 / 경기 포천시 영춘상사님 / 경남 사천시 이상영님 / 삼화메인트 공업도료팀 유상훈님 / 삼화메인트 인사팀 유상수님  
당첨되신 모든 분께 축하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SAMHWA

삼화페인트



Premium Paints

The Classy

Premium Paints with Teflon surface protector



세계적인 통합과학회사, 듀폰의 Teflon 표면보호제 기술과 건축용페인트의 선도기업, 삼화페인트 기술과의 CO-BRANDING

프리미엄도 클래스가 다르다! THE CLASSY

고객상담실 1544-5357 / www.spi.co.kr



Teflon®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and is used under license by Samhwa Paint Industrial Company, Ltd.